

대한건축사협회,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GCF사무국 송도유치에 즈음하여〉

KIRA, It's time to lead the Korean architectural service business

조충기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리는 GCF 사무국을 유치했다는 것은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논의에서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21세기 국가브랜드 상승도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 성장 사업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참여에도 유리한 입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GCF 유치 성공으로 1,915명의 고용 유발 등 연간 3,812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CF 사무국 유치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로 귀결되느냐, 서비스산업 및 금융산업발전의 전기가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력여하에 달린 셈이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분야도 글로벌 시각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GCF 사무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건 미래 동력의 시작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2010년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돼 서울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국제기구로의 전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시킬 국내법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의 주도국가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보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미국건축사협회가 미국의 서비스산업을 이끌어왔듯이 대한건축사협회도 스스로의 역량을 다듬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GCF 유치 성공은 대한건축사협회에게 국가 장래의 비전제시와 건축사집단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를 준 것 아니겠는가? 이미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는 저에너지 녹색성장, 녹색건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지 않았는가.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의 먹거리 찾기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표심 잡기의 초점을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맞추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GCF 사무국 유치를 일제히 반기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를 발판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과 비전 제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다. 이의 실천은 대한민국 건축사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협회의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지 말자!

이 기회에, 대한민국건축사집단의 역량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가보자! ㉮